

# 死亡率과 罹患率

高神大學醫學部 耳鼻咽喉科學教室

李 鍾 澹

## Mortality and Morbidity

Jong Dam Lee, M. 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Kosin Medical College

사망율(mortality) 즉, mortality rate는 라틴어(羅典語)의 mors(죽음)에서 유래된 말이다. "Man is mortal"은 生者必滅의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 영고성쇠(榮枯盛衰)의 역사적 결말도 이 한 말로 표현될 것으로 믿어진다.

구라파에서는 옛부터 "memento mori"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즉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잊지말라"는 뜻이다. 또 "morior dum orior"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morior는 죽음, orior는 태어남을 뜻하며 "죽음은 生안에" 다시 말하면 출생과 동시에 죽음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라는 뜻이다.

일찌기 고대 Greece의 대철학자 Socrates는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라고 하였다. 그리스어로는 psyche와 soma, Latin어로는 animus와 corpus로 구분하고 영혼의 불멸을 강조하면서 망설임없이 독배를 마셨다. 그 후 기독교의 등장으로 영(靈)과 육(肉) 즉, Greece어로는 psyche와 sark, Latin어로는 spirit와 caro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Mortal의 반대말은 immortal로 불사(不死)의 뜻이 된다. 이 불사의 상징이라고 하는 phoenix는 Egypt의 전설에 나오는 영조(靈鳥)로서 Arabian desert(아라비아 사막)에 서식하고 500년을 살면 그 등지에 불을 붙여 불 타 죽은 후 다시 탄생한다는 전설에 나오는 새다. Moriafund는 moribundum 즉 빈사(殞死)의 뜻이며 postmortem examination은 사후 검사 즉 부검(剖檢)의 뜻이다.

Greece어로는 죽음을 thanatos라고 하여 이 thanatos는 그리스신화의 "죽음의 신"을 뜻한다. Euthanatos는 보통 "안락사"로 번역하고 있으나, 그 어원적 본 뜻은 eu-(좋은)+thanatos(죽음)+ia(상태를 뜻하는 접미어)로 "좋은 죽음의 상태"이다.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한 1976년 미국의 Newjersey주의 Ann Quinlan사건이래 안락사(安樂死)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 안락사는 존엄사(尊嚴死)와 혼돈하기 쉬우나 이 안락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음의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를 말하며, 독일어로 Hilfe zum sterben인데 반해, 존엄사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 편안하게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Hilfe im sterben으로 표시되며 안락사와 같은 죽음의 부정이 아닌 죽음의 완성, 죽음의 영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근래 Living will(생전에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 즉 자기 자신의 죽음의 과정에 대한 희망사항을 유언형식으로 남기는 것으로 이것이 합법이나 위법이나가 논의되어 1976년 California주에서 이것이 합당한 하나의 법, 즉 자연사법(自然死法, natural death act)으로 성립된 이래 약 10년후인 1985년에는 이 자연사법이 합법으로 인정된 주가 26개 주가 되었으며 그 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안락사에서 존엄사 그리고 자연사로 변천한 이 낱말은 종말기의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한 사상의 변천을 말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존엄사에 관련해서 주목되어 온 것이 hospice이다. Hospital과 Hospice는 다 같이 Latin어의 Hospes(주인, 객)에서 나온 말이나 전자 즉 hospital은 cure를 그 목적으로 하고 후자 hospice는 care를 목적으로 한다.

존엄사, 안락사, 자연사 등의 죽음에 대한 넓은 임상을 말하는 thanatology에 관해서는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임종에 가까운 환자나 중증의 악성 종양 환자에 대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것에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료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중증환자중에서 드물게 어쩌다 한두사람 치유시킬 수는 있다. 환자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생명만을 연장시키는 일은 흔히 있으며 오늘날의 의술로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환자를 위로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깊이 생각해서 각자가 죽음에 대한 철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환율(morbidity) 즉, morbidity rate는 Latin어의 morbus(질병)에서 유래된 말이며 mo-

rbus addisonii, morbus basedowii 등과 같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Morbus에서 유래된 morbillus의 복수 morbilli는 “홍진”을 뜻하나 원 뜻은 “발진”을 말하였다. 영어로는 measles로 단수, 복수 같은 형이며 홍진이란 병명으로 쓰일 때는 단수, 홍진의 발진을 말할 때는 복수 취급을 한다. 독일어로는 masern이며 역시 복수형이다.

국가 경제가 상승하고 개인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우리나라의 morbidity도 현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따라서 평균 연령도 여자는 70세를 넘었고 남자도 그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요즘 환갑잔치는 너무 젊으니,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으며 그 만큼 생명 연장이 되어 인간의 욕망중의 하나인 “오래 살고 싶은 염원”에 끝이 있을까마는 큰 성취로 생각하며 중국의 옛 시인 杜甫가 그 “曲江”의 시 중에 “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한탄한 70세는 결코 드물지 않으며 40~50년전 인생은 불과 50년이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隔世之感이 있다.

사망율과 이환율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환자를 생각하면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한번은 정리해 두어야 할 과제이며 Heidegger의 “sein zum tode”(죽음의 존재)라고 한 말을 생각하면서 1989년을 단는다.